

부활이 미래의 일이고, 전혀 새로운 일—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—이라고 보통 이해한다. 그러나 내/우리 안에 본래 있었지만, 죽어 있던/잠자던/묻혀 있던 것을 살리고, 끄집어 내는 일이라면, 부활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현상. 오늘 요한복음의 부활이야기는 이런 유(類)가 아닐까?

A. 유대지도자와의 분쟁

1. 병고침과 신학/신앙논쟁(controversy stories, 막 2:1-3:6)

-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(요 5:8; 막 2:9)=> 현재 상황(이데올로기)에 대한 거부=> 안식일 문제로 발전. Cf. 4절은 고대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음 (7절과의 관계). 병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/신학할 여유가 없다. 대부분 주어진 환경/가치관을 수용하고 생활.
- 38년의 의미. 신 2:14에는 출애굽 세대의 광야생활 기간=> 유대교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고 보면, 이와는 단절/차별화, 새로운 신학하기.
- 죄와 질병의 관계(막 2:5-7; 요 5:14). 참조. 요 9:2-3. 당시의 언어.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까? (예. 지금 일어나고, 경험하는 일에 근원/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)

2. 안식일과 병고침

- 안식일의 기원과 목적(창 2:2-3)—두 가지 이해
 - 출 20:10-11=> 신 5:14
 - 출 31:15-17 (35:2); 레 23:3
- 안식일 새로 이해하기
 - 하느님도 안식일에 일한다? Cf. 창 2:2.
 -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온전케 함(요 7:23)//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(막 2:27).

3. 하느님과 동등하다

- 요한복음의 입장(1:1, 18; 10:30; 14:9; 20:29)
- 어떤 의미에서? => 예수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낸다 (요 5:19)

B. 부활과 생명(/심판)

1. 부활—다시 읽기

- 이것들 보다 더 큰 일(5:20)=> “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”(21절)=> 나사로를 살리는 일(11:1-44)?
- 질문. 이런 일이 있었나?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나?
 - 미래의 일로 이해하면 문자적 이해 (과거의 패러다임, 틀, 신학하기)
 -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면 다른 이야기. 이것이 요 5:24절의 의미.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(έχει, 현재형; 개역은 과거형으로, 공동번역은 미래형으로 번역),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(μεταβέβηκεν, 현재 완료형)의 의미. 완료형이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/영향을 발휘// 요 3:17-21

2. 부활—생명과 심판

- 부활은 보통 미래의 일로 여김. 요한복음은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새롭게 이해=> 전통적인 종말론은 미래의 일이지만, 이를 현재완료형으로 이해. 지금(now, 요 5:25). 무덤(요 5:28)//마 27:51-53. (for an hour is coming... AND NOW!).
- 또 다른 이해—비종교적 이해. 생명의 부활, 심판의 부활이 있다면(요 5:29 <=단 12:2), 부활 그 자체가 초점은 아님. 사람이 죽고 난 다음, 이름을 남긴다. 그 평가(심판)는 후세가.

----- 생각해 보기

1. 내가 지금 경험하는 부활은? (고전 15:19 뒤집어 읽기—“우리의 바라는 것이 저생뿐이면..”)
2. “아버지의 이름”(요 5:43)이 뜻하는 바는? 우리들이 “예수의 이름”으로 기도할 때, 그 의미는?